

헤일리(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분류: [헤일리\(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드라마 로키의 주인공인 멀티버스의 헤일리에 대한 내용은 [신 헤일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이 문서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가 설명하는 작품이나 인물 등에 대한 줄거리, 결말,
반전 요소 등을 직·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펼치기 · 접기】

인피니티 사가

아이언맨	스티브 로저스	토르
헐크	블랙 위도우	호크아이
워 머신	비전	팔콘
스칼렛 위치	스파이더맨	블랙 팬서
앤트맨	헤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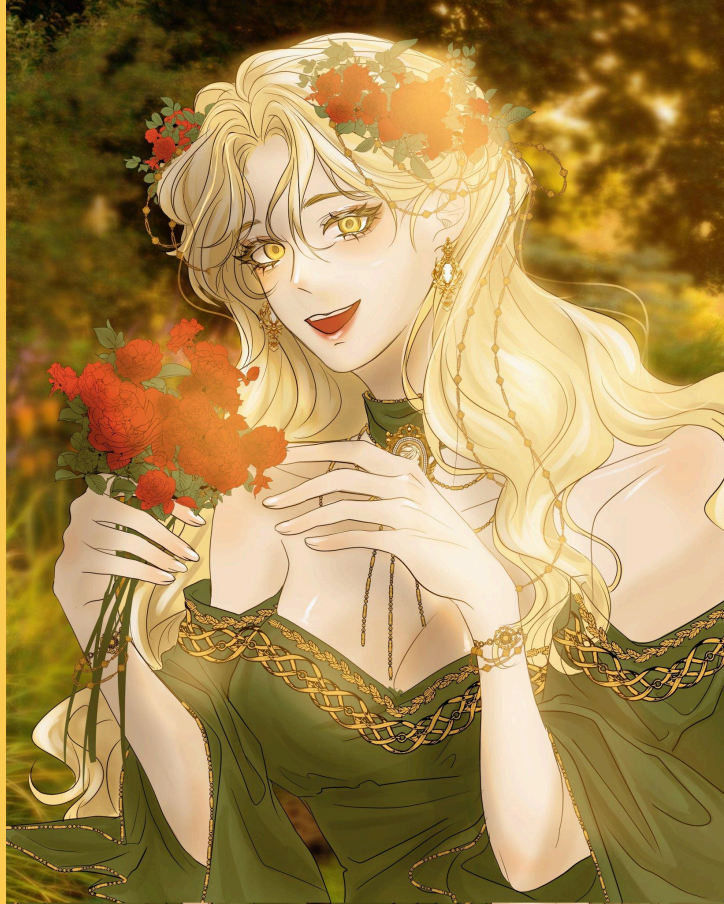
멤버 변천사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헤일리

[펼치기 · 접기]	
메인 유니버스	헤일리
지구-8734606 1	스파이더우먼 헤일리
시간의 끝	신 헤일리
지구-???	헤일리(예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등장인물
헤일리
Hailey



c. 팬아님

본명	헤일리 도슨 Hailey Dawson ^[1]
이명	봄과 미의 여신 Goddess of spring and beauty 아스가르드의 재판장 로키의 연인 헤일리 도네프스도티르 헤일리 도네폰슨
종족	아스가르드인
국적	아스가르드(이전) 뉴아스가르드

출생	973년 3월 15일
사망	2024년 5월 12일
성별	플루이드 ^[2]
신장	170cm
체중	164kg(56~60kg)
가족관계	테르(친할아버지) 도네편(아버지) 네히(어머니) 로키(배우자)
소속	아스가르드 왕실(이전) 어벤져스 리벤져스(이전) ^[3]
직책	아스가르드 재판장(이전)
등장영화	<토르: 천둥의 신> <토르: 다크월드>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토르: 라그나로크>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어벤져스: 엔드게임>

목차

- 1. 개요
- 2. 특징
- 3. 작중행적

- 4. 능력
- 5. 캐릭터성
 - 5.1. 변천사
 - 5.2. 외모
 - 5.3. 기타 캐릭터성
- 6. 의상/슈트
- 7. 인간 관계
 - 7.1. 로키
- 8. 기타

V 1. 개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헤일리.

아스가르드의 봄과 미의 여신으로 토르 시리즈의 히로인이다. 토르: 천둥의 신부터 어벤저스: 엔드게임까지 총 6편의 영화에 등장한다. 어릴 적부터 오딘슨 형제와 친했으며 로키와는 소꿉친구에서 연인, 그리고 배우자로 넘어간 흔한 클리셰적인 관계이다.

V 2. 특징

이름: 헤일리

능력: 초인적인 힘. 마법 사용

쉴드는 아스가르드의 헤일리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나 토르에 의해 자주 언급되어 봄과 미의 여신이라 불리며 아스가르드의 재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추가: 어벤져스와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엘런 벨 벨루드를 발견한 전적이 있다.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아 어디서 어떠한 상태로 발견한
것인지는 확인 불가능하지만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

[S.H.I.E.L.D. 프로필](#)^[4]

지구를 비롯한 아홉 왕국 중에서 가장 뛰어난 외모와 마법 실력을 가진 여신이라 알려져 있다. 가족은 전쟁의 신, 도네프와 지혜의 여신, 네히가 있었지만 도네프는 헤일리가 태어나기 전에, 네히는 헤일리가 어렸을 때 죽었다. 다른 가족으로는 연인이자 배우자인 로키가 있다.^[5]

V 3. 작중행적

자세한 내용은 [헤일리\(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작중행적\)](#)을 참고하십시오.

V 4. 능력

자세한 내용은 [헤일리\(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능력\)](#)을 참고하십시오.

V 5. 캐릭터성

헤일리의 캐릭터성은 헤일리, 그녀의 서사는 물론이고 로키를 비롯한 다른 아스가르드 출신의 캐릭터의 서사를 이해하는데에 아주 중요한 도움을 준다. 토르 트릴로지를 비롯한 로키가 등장하는 모든 영화 및 드라마에서 헤일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제 2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며 헤일리가 단순 여성 히어로, 지지자가 아니라 로키와 구분되는 별개의 인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자 하는 굳건한 인물’^[6]이라는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캐릭터이기 때문이다. 즉, 단순한 여성 히어로 혹은 여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성장하는 면이 두드러지며 주변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선사하는 면모가 부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로키와의 관계성에 집중되었고 그 관계성을 통해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 치부되는 신에게서는 보기 힘든 애정과 질투의 감정이 돋보였다. 또한 로키의 반복되는 죽음으로 무너지는 모습이 묘사되면서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기도 하였다. 그리고 헤일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복잡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매력적인 캐릭터가 된 것이다.

캐릭터가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을 스크린을 통해 보여주면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정체성을 스스로 찾아가거나 주변의 다른 인물들에게 도움을 주는 모습으로 헤일리는 관객들에게 큰 호감을 받는 캐릭터가 되기도 하였다. ~~염연하~~
~~작성자의 주관적인 생각이다.~~

앞서 이야기한 헤일리의 인간적인 면모는 헤일리가 봄과 미의 여신으로서 신화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 그려지는 모습처럼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자비를 베푸는 캐릭터인 반면, 로키를 사랑하며 그의 죽음으로 부정적이고 건강하지 않은 감정을 보여준 것을 의미한다. 로키의 죽음을 겪은 그녀는 다시 돌아온 로키에게 불건강한 감정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다시 잃을까 하는 두려움과 집착이 이를 의미하며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 이후에는 어떠한 위로도 받아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V 5.1. 변천사

시리즈가 진행되면서 많은 등장인물들이 인물상에 크고 작은 변화를 겪었지만 그에 비해 헤일리의 캐릭터성의 변화는 다소 적은 편이다. 헤일리의 캐릭터성은 등장하는 영화마다 비슷하게 내비쳤다. 하지만 헤일리가 겪은 변화는 주로 내적인 면과 로키와의 관계성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시리즈가 진행되면서 헤일리가 등장하는 영화마다 캐릭터의 발전 및 성장 과정이 토르와 로키에 집중되어 있고 로키의 성장에 헤일리가 필연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헤일리의 캐릭터성의 변화가 제일 처음 나타나는 작품은 토르: 천둥의 신으로, 해당 작품에서 로키의 죽음을 겪고 언제나 굳건할 줄로만 알았던 헤일리가 처음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시리즈가 진행되면서 다시 이전의 성숙하고 여유로우며 너그러운 모습을 되찾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내면에서는 로키의 죽음을 겪고 다시 만남으로써 생긴 로키를 향한 집착, 두려움 등의 불건강한 감정을 내포하게 되기도 하였다.

토르: 천둥의 신에서의 헤일리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봄과 미의 여신으로서 모두가 생각하는 신의 대표적인 면모가 강하게 드러난다. 너그로우며 베풀 줄 알고 온화하며 항상 웃는 것이 특징이니 말이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을 받기만 하였지, 꾸밈없이 진실된 사랑을 받거나 스스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준 적이 없었기에 혼자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늘었다. 또한 어린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고 왕실에 들어가 살았는데 그곳에서 제대로된 대접을 받고 싶다면 자신의 가치를 인정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탓에 누군가에게 인정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기고 스스로에게 매우 엄격한 편이 되었다. 물론 로키와 달리 누군가를 질투하거나 타인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편은 아니었다. 헤일리는 부모에게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에 홀로

성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립심이 강해졌으며 봄과 미의 여신이라는 타이틀로 많은 이들이 그녀에게 관심을 주었기 때문이다. 혼자 자란 탓에 외로움을 심하게 타기도 하지만 여신으로서의 역할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해당 면모는 숨기며 살기도 한다. 그리고 로키의 말 한마디에 도슨슬립에 빠져버리는 것에 근거하면 멘탈이 약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물론 헤일리, 스스로는 이 점을 약점이라 생각하여 숨기고 산다.

토르: 다크월드에서는 로키의 죽음을 겪고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처음 등장한다. 물론 할 말은 하는 성격이기에 로키를 여전히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독설을 내뱉거나 화를 내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이는 로키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적, 로키에게 자신은 친구도 연인도 아니었냐고 묻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이 로키에게 무기징역이라는 벌을 내린 후, 스스로가 로키를 보지 못하게 되자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판결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그녀 또한 매우 인간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제인 포스터를 지키려던 프리가와 함께 있다가 큰 부상을 입게 되는데 헤일리는 프리가의 죽음에 매우 비통해하였으며 자신이 프리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프리가의 죽음에 괴로워할 로키를 생각하였다. 토르가 제인 포스터와 로키를 데리고 스텔라알프헤임에 가겠다고 병상에 누워있는 헤일리를 찾아갔을 때 헤일리는 그들을 말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토르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말리지 않았다. 물론 그곳으로 향하는 로키가 걱정되어 꼭 살아서 돌아오라는 말을 남기었다. 하지만 이후 여정을 끝내고 토르가 돌아왔을 때 로키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파티가 열렸을 때 혼자 있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이후 로키가 오딘으로 변장하였음을 헤일리는 알아차리지만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그를 감춰주었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는 로키의 정체를 돕는 와중, 치타우리 셉터를 찾으러 가기 위해 지구로 내려갔다. 그리고 어벤져스와 함께 소코비아에 있는 하이드라 기지를 습격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이들과 비교될 정도의 월등한 전투 실력을 보여주며

아군까지 두려워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그리고 기지를 습격하였을 때는 과거 하이드라의 비밀요원, 블랙으로 활동하던 엘런 넬 벨루드를 직접 발견하기도 한다. 임무를 마치고 어벤저스 타워에서 송별회 겸 파티를 열었을 때, 헤일리도 그곳에 참석하였지만 홀로 보드카를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라는 해석이 있기도 하지만 로키의 연인이라는 타이틀로 지구인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주인공은 둘 다라고 생각한다. 헤일리는 해당 파티에서 몰니르를 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울트론으로 인해 토니 스타크와의 관계가 틀어졌으며 이어진 스칼렛 위치(완다 막시모프)의 환각을 경험하고 결국 아스가르드로 돌아간다. 헤일리가 본 환각은 아스가르드의 파멸을 담고 있었기에 헤일리에게 큰 충격과 공포, 트라우마를 주었다고 한다.

아스가르드로 돌아간 헤일리는 스쿨드를 통해 운명의 세 여신들이 자신에게 점지해준 운명을 알게 된다. 미래를 담당하는 스쿨드는 헤일리에게 ‘로키에 의해 죽게 된다.’는 미래와 ‘헤일리는 태어남으로써 로키와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으며 이 둘은 서로 사랑함으로써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 죽는 운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스쿨드는 헤일리가 로키에게 청혼을 할 거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녀가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알려준 것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헤일리는 그런 자신의 운명을 알게 되었음에도 자신은 로키를 사랑한다며 계획대로 진행하였다.

물론 헤일리는 자신이 로키에 의해 죽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로키가 이 사실을 알면 자신을 떠날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에 로키에게 이 사실을 감춘 것이었다. 스쿨드는 미래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기에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오해를 산 것이었다. 엄밀히 말하자면 헤일리가 로키에 의해 죽는다고 할 수 있으니 말이다. 헤일리는 헬라와 같이 아스가르드로부터 힘을 얻기에 아스가르드 땅이 파괴되면 힘을 얻지 못하고 결국 죽고만다. 그런데 추후 라그나로크를 불러오는 것이 수르트의 가면을 영원의 불꽃에 넣은 로키라는 것을 감안하면 스쿨드의 말은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토르: 라그나로크에서는 작품 초반, 즉 토르가 수르트의 가면을 가지고 돌아온 이후에 로키와의 약혼이 이루어지고 결혼까지 성사시킨다. 약혼과 결혼식은 모두 둘의 연애가 시작되었던 헤일리의 호수에서 이루어졌다. 결혼식은 시기가 시기인지라 조용하게 넘어가려고 하였지만 맹세의 여신, 바르의 설득으로 성대하게 하게 되었다. 결혼식을 준비할 때는 직접 결혼식에 사용할 꽃을 재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 이 장면을 통해 그녀답지 않게 실수하거나 결혼식 도중 발을 헛디디는 등 긴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후 토르가 오딘을 찾으러 가기 위해 로키를 데리고 지구로 내려갔을 때, 헤일리는 아스가르드에 남아 백성들을 돌보았는데 홀로 백성들을 돌보면서 왕의 자리를 대신한 탓에 피곤함과 부담감을 느꼈다. 물론 백성들은 안정된 정치를 보여주는 헤일리를 보고 그녀가 왕(혹은 그에 걸맞는 지도자)의 역할에 제격이라고 생각하였다. 헬리가 아스가르드에 왔을 때 그녀를 알아보고 신속히 백성들을 피신시키는 모습을 통해 보다 빠른 판단능력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니 말이다. 하지만 토르와 로키 없이는 헬라에게서 피할 수 없다는 생각에 쉽게 포기하며 희망을 잃고 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그간 그녀가 겪은 수많은 일들 때문에 생겨난 약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로키가 아스가르드에 돌아왔을 때는 그를 보고 안도감을 느끼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죽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느끼기도 하였다. 함선에서 아스가르드가 멸망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도 다시는 잃고 싶지 않아하는 마음과 그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로키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는 타노스를 만난 순간, 자신이 로키에게 죽는 날이 왔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예상외로 로키가 죽게 되자 스쿨드의 말이 틀렸다고 판단하였다. 로키의 죽음을 겪은 후에는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관객들은 예상하였지만 헤일리는 각성이라도 한 듯 이겨냈다. 물론 이는 슬픔에 잠식되기 전 자신조차 속이는 것에 불과하였다. 이는 타노스를 다시 만났을 때 분노와 슬픔에 잠식되어 무작정 뛰어드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평소 같으면 제대로된 판단을 내리고 공격을 가했을테니 말이다.

어벤저스: 엔드게임에서는 와칸다에서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허망함으로 가득해진 모습을 잠시 보여주었지만 뉴아스가르드를 재건하며 백성들을 돌보는 등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자신과 달리 처참히 무너져버린 토르 때문이기도 하였다. ~~귀와 강제로 이겨낸 것에 가까웠다.~~ 이후 토르와 어벤저스 본부에 가기 위해 그를 설득하기도 하였으며 시간 강탈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토니, 로켓, 브루스 또는 다른 이들과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헤일리의 지적 수준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토르의 언급으로 보아 헤일리는 아스가르드에 살 적, 모범생이었으며 아스가르드의 모든 서적을 읽었을 정도로 똑똑하다고 밝혀지기도 하였으니 말이다. 이후 과거에서 온 타노스와의 전투에서는 타노스를 다시 만나 두려움에 떨고 희망을 잃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 이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그간 자신이 겪어 온 일들로 인해 쉽게 포기하는 성격으로 변질된 것이다. 전투가 끝난 이후에는 토니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토르를 운동 시키거나 발키리를 설득하여 왕위에 앉히고 광고를 찍게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세상에 잠잠해졌을 때쯤 갑작스럽게 잠에 든다. 전투가 끝난 이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은 자신이 죽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V 5.2. 외모

흑발녹안의 로키와 대조적인 금발금안이다. 신화에 흔히 등장하는 여신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서구적인 외모이다. 금색이라는 요소가 사용되었지만 눈은 호박색에 더 가까워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토르, 로키와 함께 있을 때는 여리여리해 보이지만 **170cm**라는 큰 키와 전투로 인해 만들어진 근육으로 건강한 체격의 몸매를 가지고 있다. 몸무게는 **164kg**(인간 몸무게: **56~60kg**)으로 프리가, 시프와 유사한 몸매이다. 물론 크게 드러나는 근육을 가진 편은 아니기에 다른 여성들과 덩치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흡사 피겨 스케이팅 선수와 비슷한 체형. 로키역의 톰 히들스턴의 키도

188cm이며 토르역이 크리스 햄스워스도 톰 히들스턴보다 2cm 큰 190cm 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것 뿐이다. 또한 얇고 길게 뻗은 손가락을 가지고 있어 마법을 사용하는 장면에서 아름답게 도드라져 보이며 로키역의 톰 히들스턴과 손 크기가 꽤 차이 나는 편이다. 헤어스타일은 등장 작품 초반에는 긴 장발의 웨이브 진 금발이었으나 시리즈가 진행되면서 허리를 넘는 길이로 바뀐다. 물론 대체로 허리까지 오며 금발의 웨이브라는 점은 동일하다. 머리카락은 빛을 받는 양에 따라 색이 변하는데 받는 빛의 양이 많으면 토르처럼 블론드 헤어에 가까워지고 빛이 없는 곳에서는 눈처럼 호박색에 가까운 어두운 컬러를 띠게 된다.

헤일리의 외양은 부모와 닮았다. 고양이상에 가까우며 큰 눈과 뚜렷한 이목구비, 성숙하면서도 아름다운 것이 특징이다. 쌍꺼풀이 뚜렷하게 있으며 부드러운 눈매를 가지고 있다. 속눈썹은 길고 곡선으로 곧게 올라가 있다. 미의 여신이기에 모두가 인정할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V 5.3. 기타 캐릭터성

아스가르드의 주류 문화에 비추어 보면 헤일리는 로키처럼 이질적인 존재이다. 아스가르드에서는 전사의 명예를 숭상하는 경향이 있는데 헤일리는 로키처럼 지략과 마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편이기 때문이다. 물론 헤일리는 로키와 달리 마법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신인 도네폰을 닮아 전사로서의 기질 또한 가지고 있어 로키처럼 명예롭지 못하고 교활하거나 비겁한 면모는 비춰지지 않는다. 또한 아스가르드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있는 편이기에 아스가르드를 저버리고 배신하거나 힘이 있음에도 도망치는 이들을 선호하지 않는다. 로키와 비슷하게 정중하고 좋은 매너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자주 지낸 로키를 보고 배우며 익힌 것으로 해석된다. 아스가르드에는 술잔을 비우면 “한 잔 더!(Another!)”를 외치며 잔을 던지거나 내리치는 요상한 풍습^[7]이 있는데, 헤일리는 로키처럼 시녀에게 고맙다고 양전히 잔을 돌려주거나

내려놓는다. 또한 어벤저스와 함께 있을 때도 자리를 비워야 할 때면 정중히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물론 이렇게 예의 좋고 나긋나긋한 이가 싫어하는 이 앞에서는 유일하게 차가운 모습을 보여준다.^[8]

지구에서는 프레이야와 동일시 여겨지거나 풍요의 여신, 곡식의 여신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그리스 로마 신화의 페르세포네, 아프로디테,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수드와 동일시 여겨지기도 한다. 헤일리는 브리징가멘이라는 목걸이를 소유하고 있다. 해당 목걸이는 로키가 헤일리를 위해 만들어주려고 한 목걸이지만 난쟁이들과 다툼을 겪고 로키가 선물해주지 못하게 되자 이를 안 헤일리가 직접 만들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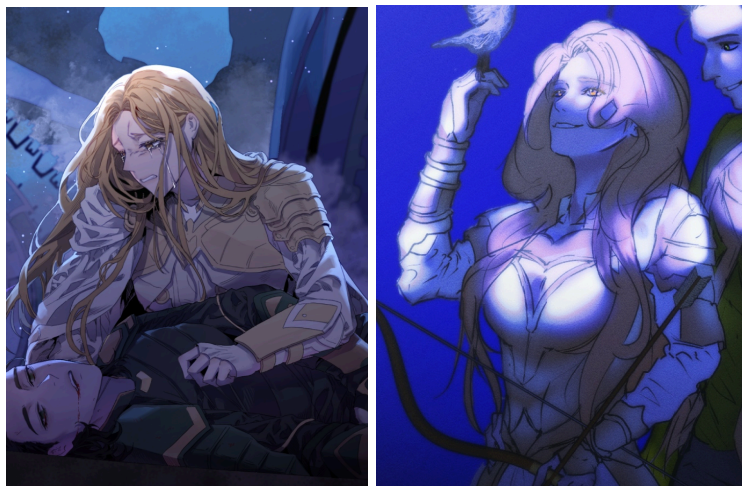
아스가르드에서 대부분의 집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 봄을 관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계절의 신이 존재하지 않는 탓에 헤일리가 사계절을 모두 신경쓰고 있다. 그리고 아스가르드의 재판장으로 일하며 지하감옥을 관리해야 하며 아이들의 교육, 다른 국가와의 외교 등의 일을 맡고 있다.

V 6. 의상

주로 편안한 드레스를 입는다. 아스가르드에 살 때(토르1~토르3)는 프리가나 시프, 평범한 아스가르드인들과 비슷한 의복을 갖추어 입었고 토르나 로키와 같이 갑옷과 망토의 조합의 의상은 전투에 나가는 것이 아닌 이상 입지 않았다. 실크 소재의 드레스를 주로 입었는데 항상 옷이 꽃으로 장식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과거 아스가르드에 살 때는 헤일리가 직접 재배한 꽃으로 장식된 드레스가 있었으나 로키의 장난으로 모든 꽃이 떨어져 망가졌다고 한다. 이 드레스는 옷장 한 구석에 보관되어 있다가 라그나로크로 인해 잃어버린다. 이 외에도 정장을 입기도 하여 어울리는 옷은 대부분 입는다. ~~주안장에~~ 헤일리의 예쁜 외모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뭐든 입는다.

헤일리의 전투복은 다른 이들과 비슷한 갑옷 형식이다. 전투복으로 환복할 때, 토르는 번개가 치는 것과 같이, 헤일리는 바람과 함께 꽃잎이 흩날린다.

이미지 컬러는 금색, 흰색 계통으로 이 색상들이 메인이 되는 의상을 입는다. 물론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 이후로는 의상 배색이 다소 바뀐다. 지구에 머물 때는 어두운 계열로 검은색 베이스에 남색 또는 녹색과 노란색(황금색)이 포인트로 들어간 옷을 입어 전체적으로 어두운 느낌을 주었다. 당시 헤일리의 배색 변화는 헤일리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로키가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의상 배색이 다소 변화한 것과 같이 헤일리는 자신이 평생 사랑해오던 이를 잃었기에 겉으로는 표현되지 않는 슬픔을 표현하고자 다른 색의 옷을 입었던 것이었다. 어벤저스: 엔드게임에서의 마지막 전투 때는 갑옷 형태의 전투복을 입었는데 전체적으로 황금과 흰색을 띠긴 했지만 여전히 어두운 느낌을 주었다. 헤일리의 옷 배색은 모두가 생각하는 여신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한다. 또한 해당 배색이 로키와는 반대되는 것을 통해 서로의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C. won님, 김좌송님

V 7. 인물 관계

헤일리는 영화화 과정에서 캐릭터성에 각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원작과도 인물 관계가 많이 다르지 않다. 원작에서도 헤일리는 온화하고 자비로운 여신의 모습으로 여러 집단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등 인간 관계가 상당히 좋다. 이러한 점은 영화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더불어 많은 사건에 연류되어 있어 여러 인물들과 다양한 관계로 얽혀있는 편이다.

토르: 천둥의 신 시점부터 “봄과 미의 여신”이라는 이름을 떨쳤으며 이때 당시에는 온화하고 자비로운 성격이었기 때문에 대외적인 이미지는 좋은 편이었다. 그래서인지 원만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많았는데 주로 아스가르드인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로키의 뉴욕침공 이후, 로키의 연인이 헤일리라는 사실이 밝혀진 뒤로는 범죄자의 연인이라는 인식으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많은 지구인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으며 좋지 않은 소리를 듣기 일쑤였다. 이 인식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았는데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 이후 헤일리가 지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시작으로 점차 바뀌어 갔다. 그리고 헤일리의 장례식 때 많은 히어로들이 참석한 것을 계기로 완전히 이전의 인식으로 바뀔 수 있었다.

여러가지 사건을 겪으며 주변 사람들의 평판도 달라졌지만 결정적으로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와 엔드게임 때 자신의 연인, 로키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녀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게 된다.

- 도네편 & 네히

헤일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자 헤일리가 가진 콤플렉스의 근원 그리고 헤일리가 히어로로서의 여정 및 그녀의 삶 전반에 걸쳐 가장 많은 고뇌 및 해답을 던져준 존재가 바로 네히라고 할 수 있다.

헤일리의 부모인 도네편과 네히는 모두 헤일리가 태어나기 전이나 어렸을 때 죽었기에 헤일리는 자신의 부모와 친해질 시간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심지어 회상

장면으로조차 작중에 등장한 적도 없어 그 누구도 그들의 생김새를 알지 못한다. 언급으로만 등장했는데 그로 보아 도네프는 가부장적이지만 그만큼 가족을 챙기는 전쟁의 신이었으며 네히는 지혜롭고 바람직한, 헤일리와 비슷하지만 보다 더 엄격한 지혜의 여신임을 알 수 있다.

- 토르

토르와는 로키 다음으로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료 관계로 서로 농담 따먹기나 한다. 물론 로키는 그런 토르와 헤일리의 관계를 질투하며 두려워하기도 한다. 로키에게 토르는 항상 자신의 것을 빼앗아가는 존재였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소중히 하는 헤일리까지 빼앗아갈 것만 같아 하기 때문이다. 물론 토르와 헤일리는 서로에게 관심이 없다. 에오울에서는 서로 애인 바보인 티를 내면서 장난삼아 말싸움하기도 했다.

헤일리는 토르가 의지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로키의 죽음 이후에 의지할 곳도 사랑하는 존재도 모두 잃은 토르의 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가 헤일리였기 때문이다. 물론 헤일리도 토르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만치 않게 토르에게 의지했다.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가족처럼 소중히한다.

- 오딘

헤일리와 오딘은 공적인 사이에 불과하다.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 없는 사이여서인데 오딘은 어디까지나 헤일리의 가치를 보고 그녀를 옆에 두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었다면 헤일리는 왕실에 있을 수도 재판장이라는 직위도 받을 수 없었을 터이니 말이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헤일리는 오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스가르드의 전사로서 명을 받으면 그 명을 수행해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움직였던 것. 물론 둘 사이의 신뢰는 존재하였다.

오딘은 헤일리가 로키와 사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단순히 헤일리가 토르와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자면 그게

나라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것. 물론 그런 생각은 헤일리와 로키의 사랑을 두 눈을 확인함으로써 저버렸다고 한다.

- 프리가

헤일리가 의지하는 존재 중 하나이다. 프리가는 네히와 친구였기에 네히가 죽은 이후로는 헤일리의 어머니 역할을 해주었는데 그 덕분에 헤일리도 프리가를 존경하게 된 것이었다. 헤일리가 받은 제대로 된 사랑은 대부분이 프리가로부터 받은 것이었으며 헤일리는 이 사랑을 로키에게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헤일리가 프리가에게 의지했기에 프리가의 죽음에 크게 비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 토니 스타크

헤일리와 작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관계를 꼽으라면 타노스 다음으로 토니 스타크를 꼽을 수 있을 정도로 헤일리는 토니 스타크와 사이가 좋지 않다. 이는 에오울 당시, 토니가 로키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했기 때문이다. 둘의 사이는 엔드게임이 되어서야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시간 여행 장치를 만들기 위해 함께 움직이는 모습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헤일리는 이후 토니의 장례식에도 참석하며 둘의 신의를 보여주었다.

V 7.1. 로키

연인이자,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다. 물론 행적, 외모, 성격, 정체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인다.

헤일리는 연인인 로키를 누구보다 아꼈고 로키도 그런 헤일리를 누구보다 아꼈다. 어릴 때부터 서로 알던 사이로 같이 자랐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여

토르: 1 때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그 때문에 초반에는 서로 아끼는 듯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다. 헤일리의 말에 의하면 로키가 처음 마법을 배웠을 때, 그가 (자신의 성인 모습을 한) 근위병으로 변신한 적이 있었고 자신은 그 근위병을 보고 한 눈에 반했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헤일리의 첫사랑이 로키였음을 알 수 있다. 헤일리는 당시의 근위병이 로키가 변신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로키를 짝사랑했는데 과거, 헤일리는 봄이 오기 몇 개월 전에 오딘으로부터 휴가를 받은 것을 계기로 당시 왕실에 있는 도서관으로 가는 길에 로키를 만나 그와 1대 1 마법 수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수업을 끝내는 날, 헤일리는 로키를 자신의 호수로 데려가 그에게 고백했고 그날로부터 둘은 연인이 되었다.

연인이 된 이후로는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사이가 된다. 로키는 헤일리를 자신의 구원자라고 보기도 하며 헤일리는 그런 로키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토르 1편에서 자신의 형인 토르를 향한 열등감, 자신의 정체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던 로키는 자신이 간접적으로 토르를 죽이거나 직접적으로 아스가르드인 친아버지인 오딘을 살리는 것처럼 서리거인 친아버지인 라우페이를 죽여, 우월감을 느끼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헤일리는 오딘이 숨기고자 하는 사실까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키는 헤일리가 자신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않고 속이는 일에 가담했다는 사실에 1차로 배신감을 느끼고 헤일리가 자신의 곁에 있어준 것이 그저 오딘의 명이었을 거라는 사실에 2차로 배신감을 느껴 헤일리에게 모진 말을 내뱉었다.

로키: 아, 헤일리. 너는 알고 있었겠구나. 그 위대하신 오딘께서 너에게 나와 함께 하라고 명했나? 어디 말해봐. 모두에게 사랑받는 여신님.
헤일리: 그게 무슨 소리야?
로키: 모르는 척하지 마. 너도 내가 서리거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잖아? 네가 모를

리가 없지.

헤일리: 로키, 내 말 들어봐요.

로키: 구차한 변명은 듣고 싶지도 않은걸. 너도

내가 우스웠겠어. 초라해 보였겠군. 고작

서리거인이 왕좌에 앉으려 하였으니. 사실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닐 테고 말이야.

물론 헤일리가 로키의 출생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로키를 향한 헤일리의 사랑 만큼은 진실되었다. 하지만 당시의 로키는 토르와 오딘에 의한 사랑, 인정을 좇던 자신의 인간적인 사심을 신적인 공심으로 감추려는 꼬인 듯한 모습을 보여준 걸 생각하면 이해가 되기도 한다.

로키의 뉴욕 침공 이후, 즉 토르 2편에서는 둘의 사이가 조금 틀어지기도 한다.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게 된 로키는 헤일리에게 모진 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그가 죽음을 속이고 아스가르드를 저버렸다고 생각한 헤일리는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헤일리는 로키에게 직접 벌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스가르드의 왕자가 되어, 옳은 일과 그른 일을
판단하지 못하고 각국에 수많은 사상자를 만들어
낸 행위, 자국에 전쟁의 공포를 심은 행위 그리고
이 외에도 저지른 수없이 많은 범법 행위를
바탕으로 판단하건대 지혜의 여신의 이름으로
죄를 판명하고 벌을 내리겠노라. 로키 오딘슨....

(오딘의 목 가다듬는 소리)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어버린 로키 라우페이슨은
아스가르드의 지하 감옥에서 사랑하는 가족, 친구
그리고 연인을 포함한 그 누구도 만날 수 없을
것이며 그저 죽을 때까지 외롭게 지내야 할 것을
나, 헤일리 도슨이 지혜의 여신, 네히의 이름을
빌려 명한다.

물론 이 둘은 그마저도 포용할 수 있을 만큼 서로를 사랑했기에 원래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었다. 로키가 헤일리에게 내뱉은 모진 말도 그저 헛김에 했던 말에 가까우며 감옥에 찾아간 헤일리의 “친구도 연인도 아니었냐”는 말에 “아니었다”고 답하는 것 또한 헤일리를 위해 한 말임을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밝혀진다. 과거로 돌아간 헤일리가 감옥에 갇힌 로키와 대화를 하고 그를 떠날 때, 로키는 그녀가 들리지 않게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었으니 말이다.

토르 2편 이후, 모든 일이 해결된 시점에서는 서로에게 사랑을 맹세하며 공식적으로 부부가 된다. 물론 이 둘은 운명의 여신이 만들어 놓은 운명에 걸려 있다. 어느 세계에서든 서로 사랑하게 되며 서로 사랑할 경우, 적어도 둘 중 하나는 죽게 되는 운명인데 헤일리는 이 운명을 결혼식 전, 스쿨드에게서 듣게 되지만 그럼에도 로키를 사랑하였기에 운명을 받아들이고자 했다. 로키는 이 운명을 신 로키가 되고 나서야 알게 된다.

그 정도로 둘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는 사이이다. 둘의 사이는 결혼식~토르 3편까지를 걸쳐 완전히 해결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인피니티 위에서 헤일리는 로키의 도망가라는 말에 스쿨드의 말이 이루어지는 날이 도래했다고 생각하여 도망치지 않았다. 자신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로키는 테서렉트를 버리고 헤일리와 토르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타노스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척 토르에게는 영원한 충성을, 헤일리에게는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고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게 제 연인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지켜 봤던 헤일리는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고 반드시 복수하여 타노스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지켜보겠다고 다짐한다.

헤일리 또한 토르와 같이 인피니티 워 후반부에서는 자신의 분노에 무작정 달려드는 모습을 보여주며 복수심이라는 감정에 눈이 먼 복수자가 되는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과거의 로키는 미래의 자신이 패배했다는 걸 깨달아 겸손해져 공적인 사명을 이루는 ‘구원자’(Savior)이자, 히어로가 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엔드게임에서 아이언맨이 희생을 치르는 책임을 택한 것처럼 로키도 희생을 치르는 책임을 택하고 신격을 얻어 신이 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당시 로키의 모습을 보면, “내가 어떤 신이 되어야 할지 알겠어. 당신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라는 대사를 치며 신적인 공심을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로키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뉴아스가르드 어딘가에 로키의 무덤을 만들며 로키와 자신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썼다.

V 8. 기타

- 아스가르드인 기준으로 보면 나이가 상당히 어리다. 소설판의 내용을 통해 유추하면 오딘이 약 5,500년 가량을 산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근거로 에시르의 평균 수명을 5,000살로 잡아 ‘5,000:80(혹은 5,000:100)=1050:×(1,000:20)’라는 비례식을 세워 보면 16,8~20세 정도로 나온다. 즉, 미성년자다. 사실 아스가르드인들의 생활 문화가 지구의 중세 초기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걸 감안하면 16~20세도 그들 기준에선 충분히 성년일 수 있다. 이 비례식은 에시르의 수명이 인간의 60배가 넘으니 성장 기간도 60배라는, 가능성이 낮은 가정

하에서나 성립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5,000살 사는 종족 사이에서 1,050살 정도면 확실히 어리다. 인피니티 위에서 토르가 1,500살 가량 되었음을 명시적으로 언급됐고 육체적 나이는 인간으로 치면 20대 중반 정도라고 하니, 450살 정도 아래인 헤일리와 로키는 10대 후반~20대 초반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헤일리와 로키도 8살 차이가 나지만 이들에게는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닐 터이니 말이다. ~~물론 인간 나이로 환산했을 때 성인일 때 결혼을 시키고 싶은 주인공의 마음 때문에 라그나로크 이후로는 20대 초반이라고 보고 있다. 애초에 얼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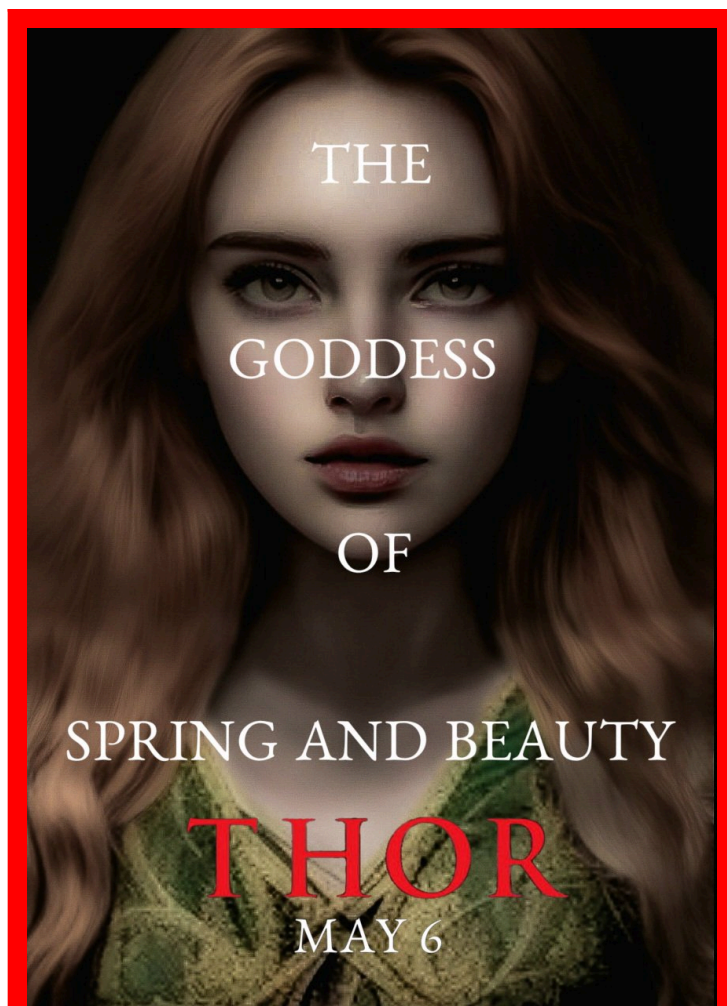
- 헤일리의 가문은 대대로 슬립이라는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헤일리의 친가쪽에서 내려온 것으로 헤일리가 아스가르드로부터 힘을 얻는 것 또한 그들에게 물려받은 것이다. 슬립은 500년에 한 번씩 잠을 청하며 신의 힘(권능)을 되찾는 것을 의미한다. 오딘슬립과 유사하며 헤일리의 죽음으로 대가 끊기며 도슨슬립은 전설에만 남게된다. 도슨슬립은 주기가 가까워지면 전조증상 없이 잠들어 버리기 때문에 크게 다칠 수도 있어 이들에게는 저주와도 같은 것으로 치부된다. 헤일리의 경우, 그녀의 아버지인 도네폰과 달리 정신적으로 약해지거나 체력적으로 안 좋아지면 주기가 한참 남았음에도 도슨슬립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름은 매번 바뀌었다. 그녀의 할아버지 때부터 순서대로 테르슬립, 도슬립, 도슨슬립으로 변화하였다. 원래는 전통에 따라 헤일리슬립이라 부르려 하였지만 헤일리가 원치 않아 도슨슬립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금발이라는 점과 밝고 쾌활한 캐릭터라는 점에서 토르와 헤일리가 매우 닮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딘과 프리가가 헤일리를 가족처럼 대해준 것에 대한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니다. 그냥 헤일리의 부모와의 친분 그리고 헤일리의 가치 때문이다.~~

- 로키와 토르, 헤일리는 모두 지구의 복식을 입은 적이 있다. 로키는 토르1, 어벤저스1, 토르3에서 분신을 보내거나 직접 와서 환복(내지는 환영)으로 지구 복장을 했고 토르는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셀빅 박사를 찾아오는 과정, 그리고 라그나로크에서 아버지를 찾아 로키와 지구로 동행하는 과정에서 지구 복장을 했다. 헤일리는 “에이지 오브 울트론”과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에서 모두 지구 복장을 했다. 물론 후드티와 청바지 등의 캐주얼한 복장을 하는 토르와 달리 헤일리와 로키는 매번 깔끔한 예복이었다. 로키는 항상 정장을 입었으며 헤일리는 깔끔한 원피스를 입었다.
- 원전 신화의 헤일리는 프레이야와 친한 봄의 여신으로 등장하며 프레이야와 동일시 여겨지자 그때부터 미의 여신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다. 영화에서는 프레이야가 존재하지 않고 헤일리가 봄의 여신과 미의 여신이라는 칭호를 둘 다 가지고 등장한다. 이 때문에 헤일리를 만난 지구인들은 프레이야에 대해 묻곤 했다. 영화에서도 헤일리는 주로 “봄과 미의 여신”이란 타이틀에 걸맞게 꽃을 다루는 이미지가 가장 부각된다.
- **젠더플루이드**로 확인되었다. 드라마 로키에서 문서로 밝혀졌으며 이 때문에 바이섹슈얼이라는 의혹이 있었으나 해당 내용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젠더플루이드인 이유는 변신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헤일리 스스로도 자신의 성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아 하는데 이는 그녀가 “도슨”이라고 불리는 점에서 알 수 있다.
- 헤일리보다는 로키가 대중들에게 인기가 더 많은 편이지만 예상 외로 로키보다 헤일리가 등장한 영화가 더 많다. 헤일리는 총 6편에 달하는 영화에 등장하였지만 로키는 5편의 영화에 등장하였다. 심지어 헤일리는 로키와 토르, 오딘 이외의 등장인물에게 자주 언급되어 인지도도 높다. 어벤저스1 당시, 사춘기의 극에 달한

로키임에도 불구하고 토르를 비롯한 어벤져스에게 헤일리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니 말이다.

- 결혼식에서 로키는 코트와 비슷한 갑옷을 입었으며 헤일리는 꽃으로 장식된 흰 드레스를 입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서로 사랑을 확인했던 호수에서 이루어졌으며 겨울이었음에도 벚꽃이 만개했다. 결혼식 후반에는 꽃폭죽이 크게 터졌는데 이는 로키가 아무도 모르게 준비한 것이라고 한다. 청혼은 둘 다 준비해버린 탓에 반지가 두 개였다.
- 봄의 여신인 만큼 생일, 청혼, 기일까지 헤일리와 관련된 이벤트는 모두 봄에 위치해 있다.
- 현재 메인 유니버스를 포함하여 5개의 멀티버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지구-87346061은 헤일리가 미드가르드인으로 스파이더 우먼으로 활동하며
지구-973315은 헤일리가 서리거인으로 아스가르드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들이다.
이 외에도 번호가 매겨지지 않은 일명, 예외라고 불리는 멀티버스는 신 로키로 인해 다른 운명을 맞이한 이야기이며, 로키 드라마를 기반으로 한 TVA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도 하다.

V 9. 역대 포스터



토르: 천둥의 신

(Thor, 2011)

[1] 원래라면 헤일리는 도네프스도티르라고 불려야 맞지만 도네프이 자신의 자식은 아들(전쟁의 신의 자식이어서)일 거라고 생각해서 도슨이라고 해달라고 전쟁에 나가기 전 네히에게 말했다고 한다. **Daw**는 도네프의 이명. 그리하여 네히는 도네프의 뜻대로 도슨으로 부른 것이며 헤일리는 고쳐 부를 수 있음에도 그냥 도슨이라고 하였다.

[2] 젠더 플루이드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성이 바뀌는 것을 뜻하며 헤일리가 플루이드라는 점은 **TVA**에서 프로파일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혀졌다.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여성이 맞으며 본인도 평소에 스스로를 ‘여신’이라거나 ‘도네프의 딸’이라고 칭하는 등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긴 하나 남자로 변신 가능한 능력 탓에 플루이드로 판정된 모양이다.

[3] 헬라에게 대적하기 위해 사카아르 행성에서 토르, 로키, 헐크, 발키리 등과 함께 결성한 일회성 히어로 집단. **TVA**의 라그나로크 사건 파일에 관련자로 그 이름을 남겼다.

[4] 어벤저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5] 토르와 같이 주변인들이 결국에는 모두 다 죽는다. 그리고 그 주변인에 자신도 포함되는 편.

[6] 로키에게 고백할 때도 이를 이야기하였다. “로키, 나는 여신이에요. 그것도 모두에게 사랑받는 봄과 미의 여신이죠. 하지만 나, 누군가에게 사랑을 준 적이 없더라고요. 그 사랑,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 로키, 어때요?”

[7] 토르는 지구에 처음 왔을 때 이 짓을 시전했다가 제인에게 혼나기도 했다.

[8] 토니 스타크는 처음 헤일리를 봤을 때 아름다운 외모에 작업을 걸었다고 한다. 물론 헤일리의 완강한 거절과 로키가 연인이라는 사실에 그만 둔 것. 그것만으로 관계가 틀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게 영향을 끼친 것도 없지 않아 있다. 진짜는 토니가 “당신은 네 애인이 지구를 공격했을 때, 여기 없었으니까 몰랐겠지!”라고 헤일리에게 로키의 욕을 한 탓. 이 뒤로 헤일리는 토니는 오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었다.